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2호 [루게 제23204호] 주제99 (2010)년 9월 9일 (목요일)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공훈국가합창단의 《9월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공훈국가합창단의 《9월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음악회를 보게 된 관람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전체 관람자들은 불분불후의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공화국을 강위력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켜 주시고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국경절을 맞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태종수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과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김명국동지, 김원홍동지, 현철해동지를 비롯한 군대와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이 음악회를 함께 보았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한 공연무대에는 남성합창 《경례를 받으시라》, 《충성의 노래》, 《조선로동당 만세》, 관현악과 남성합창 《밀림이 설레인다》,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나의 조선아》, 남성합창 《변영하여라 로동당시대》, 남성2중창과 남성합창 《정말 좋은 세상이야》, 《우리는 빈

터에서 시작하였네》,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달하라 성강의 붉은 파도여》, 남성합창 《돌파하라 최첨단을》, 《승리의 길》, 《조선의 행운》, 《천세만세 장군님을 목숨으로 보위하리라》, 《조선의 모습》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무기이며 우리 인민의 행복의 요람인 공화국의 기치따라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자랑찬 과정을 긍지높이 노래하였으며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고 야말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 전투적기상과 투지를 잘 보여 주었다.

관람자들은 선군조선의 기상이 나래

치는 격동적인 음악회를 보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아래 역사의 준엄한 시련을 헤치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자주와 항로를 따라 역세게 전진하여 온 자랑찬 나날들을 커다란 자부심을 안고 돌이켜보았으며 일편단심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건국업적이 찬란히 빛나는 이 땅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노도쳐 전진하는 선군조선의 장엄한 기상을 힘있게 노래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음악회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 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흥분의 열정이 뜨겁게 끓어치는 장내는 불도

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예술인들이 조선의 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이 도도히 맥박치는 훌륭한 음악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판록있고 위력한 예술집단인 공훈국가합창단은 우리 인민의 자랑으로, 나라의 귀중한 재산이라고 하시면서 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전투적인 예술창조활동을 더욱 파감히 벌려 군대와 인민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 인민공화국 주석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배이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호 금 도 동 지
나는 당신이 우리 나라의 일부 지역에서 큰물피해를 입은것과 관련하여 위문전문을 보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일
주제99 (2010)년 9월 8일 평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내각총리 최영림 동지에게 중국의 당 및 국가령도자들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일 동 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동 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최 영 림 동 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과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유화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이며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이며 팔레스티나인민혁명군 수반인 마흐무드 아바스각하가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어온 꽃바구니를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산 주조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가 7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중국 항일혁명렬사 장유화동지의 가족이 7일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꽃바구니의 땀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씨가 적여져있다.

본사기자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당신들께 그리고 당신들을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정부, 형제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나라의 주인이 되어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조선역사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았습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 그리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발양하여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위업에서 기뻐할만 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기뻐하고있으며 조선인민이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더 큰 성과를 거두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중조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적인 림방입니다.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이 친히 마련하고 키워주신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국제정세변화의 시련을 이겨내고 두 당, 두 나라,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측과 함께 계속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 정신에 따라 두 나라 각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심화시키고 중조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복리를 가져다주고 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나갈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성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조 무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신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8일 무판단단장인

순연봉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국방무판이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국제김일성상리사회 서기장인 주체사상국

제연구소 리사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신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비슈와 나스리사장이 8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호 금 도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호 오 방 국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호 온 가 보
2010년 9월 8일 배이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평양 9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8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를 세우시고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부강번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선군의 기치높이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펼쳐시며 이 땅에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 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와 신뢰의 정으로 세계가 끓어번지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공화국기를 배경으로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백두산모형과 《경축 62돐》이라는 글말이 걸려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이 땅에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대회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대회에는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무판단성원들, 국제기구대표들이 초대되었다.

김영남동지, 최영림동지, 김영춘동지, 리용무동지, 오극렬동지, 전병호동지, 최태복동지, 리영호동지, 김경각동지, 김국태동지,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공로자들이 주식단에 자리를 잡았다.

제일본조선인측하단 단장인 박주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주식단에 앉았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최영림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끝났다.

